

12 특집

태권도학과, 도전의 4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위해

노윤지 기자 yoonji2022@khu.ac.kr
서나은 기자 merlo@khu.ac.kr

세계 최초로 4년제 대학에 등장한 우리학교 태권도학과가 40주년을 맞이했다. 태권도학과는 지난 1983년, 태권도 지도자와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신설됐다. 무술의 한 종류인 ‘태권도’가 학문화된 것 자체가 세계 최초였다. 이후 우리학교 태권도학과 동문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우리나라와 우리학교 위상을 세계에서 드높이고 있다.

태권도학과의 시작에는 우리학교가 강조하는 가치가 담겨있다. 대학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는 것이었다. 1980년대는 대한민국이 성장을 거듭하며 지금의 한류 열풍이 싹 틔우던 시기였다.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데 우리나라 전통 무예인 태권도도 큰 역할을 했다. 이에 태권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체계와 기초를 대학 차원에서 다지자는 사회적 요구가 따랐다.

우리학교 태권도학과 1기 졸업생인 태권도학과 임신자(태권도학) 학과장은 “당시 평화를 주창했던 우리학교 설립자 미원(美源) 故 조영식 박사께서 태권도를 통해 평화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었었다”며 태권도학과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설립 초기에는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릿할 수밖에 없었다. ‘태권도학’은 태권도 선수에게도 생소한 분야였다. 당시 체육 혹은 무술의 하위 영역으로 태권도를 해석하자는 시각과 태권도 자체의 학문적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시각이 대립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학교 태권도학과는 뛰어난 실기 실력을 갖춘 사람과 기존 체육 학문을 공부한 사람을 교수진으로 모셔 실기와 이론을 모두 갖추고자 했다. 정명규(태권도학) 교수는 “태권도를 학문화하면서 이론 정립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더욱 전문화된 스포츠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태권도학과가 가지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태권도의 독특한 힘 문과 무를 겸비한 인재

또한 임 학과장은 태권도의 가치를 설명하며 “Discipline(디시플린)”을 언급했다. 디시플린은 규율, 훈련, 수양, 통제라는 뜻을 가지며

태권도 수련생의 태도를 의미한다. 임 학과장은 “디시플린은 교육적으로 독특한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가 우리나라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전 세계 청소년을 건강하고 튼튼하며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한다는 면에서 태권도에는 교육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태권도 훈련에서의 수양과 통제는 어떻게 인재를 길러내는지에 관한 질문에 임 학과장은 “그 의미를 문(文)과 무(武)를 겸비하는 것에서 찾는다”고 답했다. 무(武)가 특화된 기술이라면, 문(文)은 그 기술을 어떻게 다루고 적용할지를 익히는 일이다.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할 때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태권도에만 그치지 않는 삶의 양식이다. 태권도가 단순한 운동에서 그치지 않고 학문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다.

설립 40주년 행사 학과 구성원이 하나돼

임 학과장은 태권도와 울고 웃으며 함께한 만큼 애정과 자부심도 크다. 임 학과장은 “정년이 되기 전에 학과를 위해, 후배를 위해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다”는 고민 끝에 40주년 행사를 기획했다. 4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애매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태권도학과의 저력을 보여주고, 태권도학과의 가치를 알리자”는 마음이 결국 사람들에게 와닿게 됐다.

태권도학과 설립 40주년 행사는 ‘도전의 4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위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임 학과장의 뜻처럼 행사는 졸업생과 재학생, 교수와 동문이 하나 된 모습이었다. 재학생 대표 인사, 졸업생 축하공연, 시상식과 기금 전달식이 이뤄졌다. 태권도학과 미디어 동아리 JMT에서는 태권도학과 40년 발자취 영상을 만들어 상영했고 ‘자랑스러운 경희 태권인’ 시상에서는 태권도학과 1기생과 국가대표 선수들을 포함해 3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사에는 이동섭 국기원장을 비롯해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장, 최권열 한국초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 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장 등 여러 임원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동문의 적극적인 도움과 300여 명의 졸업생, 재학생의 참여를 통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



태권도학과는 1983년 체육대학관 개관과 함께 신설됐다. (사진=태권도학과 미디어동아리 제공)



우리학교는 1989년부터 총장기 전국 남녀 고등학교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총장기 태권도 대회는 올해로 35주년을 맞았다. (사진=태권도학과 제공)



지난 11일, 국제캠퍼스에서 태권도학과 40주년을 맞아 교원, 동문, 재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기념식이 열렸다. (사진=태권도학과 미디어동아리 제공)



40주년 기념 행사에서 졸업생 축하공연이 이뤄졌다. (사진=태권도학과 미디어동아리 제공)

이다. 단일학과로는 최고 수준인 2억이 넘는 기금이 모이기도 했다. 임 학과장은 이에 “이번 행사를 통해 태권도에 결집을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게 증명된 것 같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행사 이후 “40주년을 맞으며 태권도학과를 향한 동문의 애정을 볼 수 있었다”며 “이런 협동심을 느낄 때면 태권도학과가 항상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학과라고 생각한다”는 뿌듯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학과를 넘어 세계로 40주년을 넘어 100년으로

우리학교 태권도학과는 4년제 대학 최초의 태권도학과이자 우리학교의 ‘간판학과’이기도 하다. 임 학과장은 학생과 교수진 모두 과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태권도학과가 태권도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고 우리학교가 최고의 대학이라는 것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에서 그 저력이 드러났듯이, 태권도학과 사람들은 자부심과 함께 끈끈한 소속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재학생인 송민우(태권도학 2022) 씨는 “40년이라는 긴 전통이 있는 만큼 어딜 가나 태권도학과 선배님들의 연결고리가 있어서 항상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다”며 “우리학교 태권도학과만의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학과 미래에 묻는 질문에 임 학과장은 “태권도학은 경쟁력 있는 학과다”고 답했다. “전 세계에 경희대학교를 알릴 수 있는 학과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태권도는 우리 상상 이상으로 외국에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기에, 국경의 한계 없이 한국의 전통과 교육적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학과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실기와 이론 모두 잘하는 태권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임 학과장은 “태권도를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학교에 오고 싶어 한다”며 “우리 경희 태권도가 더 유망하고 인정받는 학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단순한 운동을 넘어 대한민국과 경희대를 알릴 수 있는 교육적 콘텐츠가 내재돼 있는 학과라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덧붙였다.